

## 세븐일레븐 31일까지 '세븐로또' 이벤트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31일까지 '세븐로또' 이벤트를 진행한다. 5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고 세븐일레븐 적립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1~45 번호 중 자동으로 추천된 4개의 번호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1등(4개 번호 당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옐로포인트를 증정한다.



## 비즈 포커스 | 5대 그룹 총수의 2021년 경영 화두

#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극복·미래준비”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신화' 의지  
정의선 회장 “미래사업 가시화 목표”  
구광모 회장은 ‘고객가치 경영’ 강조



‘위드 코로나’ 시대의 2021 신축년을 맞은 5대 그룹 총수들은 신년 경영 화두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내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2021년 경영 화두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내세웠다.

미래, 신성장, 사회, 고객, 시너지 등 추구하는 방향을 달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핵심 포인트는 모두 같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일 새해 첫 경영행보로 평택2공장을 찾아 ‘뉴 삼성’ 의지를 확고히 했다. 평택2공장은 D램,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위탁생산)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라인이다. 이 부회장은 평택2공장을 살펴보고 반도체 투자·채용 현황과 협력회사와의 공동 추진과제 등을 보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 함께하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다”며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고 밝혔다.

“쉽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룹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며 “새 도전과 변화를 통해 친환경, 미래기술, 사업경쟁력 영역에서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이 정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받은 혜택과 격려에 보답하는 일에 서둘러 부족했다”며 “이런 반

성으로부터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봤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행복추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전과 패기, 새로운 기업이 정신을 기초로 힘과 마음을 모으자”고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객 감동’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생활방식이 개인화되고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하면서 고객 안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고객을 세밀히 이해하고 감동을 완성해 LG팬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인권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의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눈 앞의 벽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벽을 높여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한 해를 만들자”며 “각 회사가 가진 장점과 역량을 합쳐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힐라 키즈 ‘드림 키즈 백팩 컬렉션’ 출시

힐라 키즈가 ‘드림 키즈 백팩 컬렉션’(사진)을 내놓았다. 크리에이터, 아이돌, 축구, 로켓 등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희망과 취미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별과 하트 모양의 LED로 장식해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다. 핸드폰 전용 수납 히트 포켓이 있어 휴대전화와 알람을 잘 들을 수 있다. 초경량(500g) 무게에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U자 어깨 끈과 에어메시 소재의 다양한 포켓을 구성했다.

## 삼성카드, 사회 초년생 응원 애니메이션 공개



삼성카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첫 에피소드는 직장생활 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사회 초년생들의 일상을 담았다.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고 ‘작년의 너도 올해의 나도 참 수고했어, 우리!’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향후 취미 생활, 연애 등 사회 초년생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 금호타이어,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가 교육부 주최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매년 활발하게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호타이어는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다방면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2016년에 이어 2020년에 3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호타이어는 2016년부터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희망의 공부방’ 개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PC, 가구 지원 등 환경개선을 통해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 사업은 사내 사회공헌활동 아이팀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가 실행된 첫 사례로 현재까지 23호점이 완공됐다.

원성열 기자

## 스위스, 120년 역사 빈티지 노선 기차 론칭



스위스는 1882년 개통한 고타드의 옛 노선을 달리는 ‘트레노 고타르도’(Treno Gottardo) 기차(사진)를 새로 론칭

했다. 연중 상시운행하는 기차로 취리히와 바젤에서 매 시간 출발해 루체른을 거쳐 로카르노까지 이어진다. 120년이나 된 오랜 노선을 달리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알프스의 절경을 마음껏 볼 수 있다. 트레노 고타르도는 옛길을 따라 250개 이상의 다리와 7개의 터널이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범 기자

##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신청

### ‘인슈어테크’로 보험 인식 개선 앞장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바이유’와 함께 보험 상품을 선보인 것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보험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자는 “보험 판매 플랫폼 제공 뿐 아니라 사용자 니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해왔다”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환경 속에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서비스들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며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암웨이, ‘벨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출시

한국암웨이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프의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벨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사진)를 출시한다. 캡슐 형태의 제품으로 장 부착성이 우수한 모유 유래 유산균 ‘L루테리’ 등 3종의 특허 균주를 포함한 8가지 복합균을 배합해 하루 50억 CFU(보장 균수)를 섭취할 수 있



다. 한 캡슐 당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연의 일일 권장량 100%를 제공하며, 부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 배양 건조물(유산균 사균체)을 함유하고 있다.

정봉운 기자



“방한용품으로 한파 극복” 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방한용품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3일까지 방한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소프트 넥워머, 머플러, 아동용 귀마개, 방한슈즈, 장갑 등이 대표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롯데마트

## 유통·뷰티 수장들 “불확실성 시대에 새로운 기회 만들자”

정용진 “시장 재편되는 올해가 최상의 기회”  
차석용 “진화하는 고객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유통·뷰티업계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는 올해가 오히려 최상의 기회”라며 “지치 않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반드시 이기는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위기의 해법으로 ‘고객의 본원적 가치’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고객의 본원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변화를 실천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2021년 경영방침을 ‘위닝 투게더’로 선정해 강한 브랜드, 디지털 대전환, 사업 체질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과 유통의 변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위기가 왔을 때 변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신세계·현대백화점·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속도가 빨라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몰락의 시작점”이라며 “진화하는 고객을 정확히 감지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